



주부들이 쌀을 씻지 않고도 바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쌀인 '청결미'가 올 가을쯤 대량으로 상

지 3억5천만원을 들여 식품개발연구원의 기술지도 아래 미국종합처리장을 세웠다.

농원쪽은 기계설치가 끝난 뒤 4개월 만인 지난해 10월부터 깨끗한 쌀, 청결미의 시험 생산에 들어가 지금까지 10kg짜리 8백여포대를 만들어 상품화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 깨끗한 쌀을 연구원이나 농원쪽이 '청결미'라고 부르는 것은 이 쌀이 도정된 정백미에 붙은 쌀겨나 이물질들을 제거해, 씻지 않고 바로 지어 먹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쌀겨가 붙고 돌·풀씨 등 이물질이 섞인

의 생산능력은 시간당 3t정도, 자동 비닐포장기와 색채선별기를 제외한 세척기 설치비용만은 7백여만원밖에 안돼 시험생산된 청결미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에 따라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식품개발연구원이나 유당농원쪽은 청결미가 영양소의 손실 방지, 취사의 편리성, 하천오염의 방지효과 등으로 주부들의 인기를 끌어 대량생산과 소비가 가능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연구원이나 농원쪽은 특히 다른 식품과 같이 쌀도 '즉석요리' 시대가 오면서 바로 가스버너 등에 얹어 먹을 수 있는

쌀 통조림, 냉동 쌀이 등장할 것이 거의 틀림없기 때문에 청결미에 의해 제2의 쌀식품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당농원쪽은 우선 쌀과 가까운 주부들의 반응을 얻기 위해 직

원들에게 나눠주며 밥을 짓도록 하는 제품시험을 하고 있다.

직원들은 가정에 가지고 가 물을 뿌려 '닭고', '짜고', '말렸'고 부인들에게 누누이 설명했으나 직원들 가정 거의 모두가 처음에는 한번 씻어내고 물을 부어 밥을 지었다. 여러번 손으로 휘젓고 문질러 조리질을 해 온 기존

물로 씻지 않고도 바로 밥을 지을 수 있는 청결미가 생산돼 주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쌀 씻지 않고도 밥 짓는다

식품개발연·유당농원 올가을 '청결미' 대량 시판



섬유롤러 거치면서 죽정이·쌀겨 가려 영양손실 적고 취사편리 주부에 인기

정백미가 청결미가 되려면 특수화섬유로 된 롤러를 통과하면서 안개처럼 된 물입자가 뿌려져 씻어지고 여과판과 쌀과 쌀의 마찰열, 세계 빨아들이는 흡입공기에 의해 쌀이 닭고 수분이 마르게 된 뒤 다시 색채선별기를 거쳐야 한다. 이때 색채선별기는 말 그대로 신통하게 하얀 쌀 색깔이 아닌 돌, 피, 풀씨, 다 익지 않아 거무스름한 죽정이 쌀까지 어김없이 가려내 비로소 바로 물을 부어 밥을 지을 수 있는 깨끗한 쌀인 청결미를 만들어낸다.

현재 유당농원에 설치된 청결미 세척기계

번이고 물을 갈아도 떠오르곤 하던 쌀겨, 죽정이쌀, 이물질이 떠오르지 않았다.

"쌀을 꼭 문질러 씻는 습관 때문에 그냥 물만 부었다고 해서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 않았으나 호기심으로 먹어보았더니 진짜 밥 맛이 좋더군요" 농원 박종환(38)씨의 말이다. 이인행 원장은 올 가을 수확되는 벼로 청결미를 만들어 시판할 계획이라면서 판매 가격 등은 아직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한차례 소비자 반응 등을 조사한 뒤 청결미가 갖고 있는 장점을 홍보, 소비를 늘릴 계획입니다." <무안=박화강 기자>

물론 자취생과 등산객들의 귀가

깨끗한 쌀제

일본에서 5

상품화됐

리나라엔 한

발연구원에

난 87년 도

연구원은

생산해내는

기술 등을

안군 청계면

유당농원(원장 이인행·67)

87년부터 2년여동안 제

원은 논에서 콤바인으로

인 물벼를 건조시켜 청

하나의 일관된 작업과정

만들어내는 국내 단 하

미국 종합처리장을 갖추

합처리장은 한국식품개

의 식량시스템연구실험

동철 연구원 등에 의해

있는데 벼 건조시설인 개

청결미를 만드는 도정시

일관공정체

어져 있다.

품개발연구

계과정에서

해 완공된

의 미국종

은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이 연구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바다를

한 80만평의 논에서 9천가마(8

를 수확하는 유당농원이 이 미국종

설을 도입키로 한 것은 농촌 일손

이였다. 이인행 원장은 "벼 수확

하루에 1백명 정도의 노동력이

해가 거듭될수록 인력난이 심화돼

키 위해 물벼만 집어넣으면 청결

는 기계설비를 갖추게 됐다"고 말

원은 지난 87년부터 지난해 6월까